

KOSI 중소기업 포커스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성향과 국내 벤처투자 유치 가능성 진단

책임작성 | 이유진 연구원(02-707-8281, yujinlee@kosi.re.kr), 장윤섭 책임연구원,
김연주 선임연구원, 임수환 선임연구원, 이정환 선임연구원, 권재한 선임연구원

※ KOS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논의 배경
2. 국부펀드의 개념과 중동 국부펀드의 주요 동향
3. 중동 국부펀드의 벤처투자 성향과 국내 환경 분석
4.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요약

-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외 벤처투자 규모가 축소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
 -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던 국내 스타트업·벤처 투자 역시 글로벌 벤처투자의 위축과 함께 감소
-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중동 국부펀드’를 주목
 -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미국, 아시아 중심으로 운영된 해외 벤처 네트워크를 중동,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고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
 - 특히 새로운 벤처투자 유치방안으로 중동을 주목하고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국가와 투자 협력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 중
- 주요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성향과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 적합도를 진단하여 실현 가능한 투자 유치 방향을 마련할 필요
 - 중동 국부펀드가 주목하는 투자대상국·산업·벤처투자의 투자 단계를 살펴보고 정부가 육성 중인 아·예비 유니콘 기업의 특성과 비교·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스타트업에 중동 국부펀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제 제시

■ 중동의 국부펀드는 소비기반 플랫폼,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에 집중하고, 투자 단계는 Series C 이후의 후기 단계를 선호

- (산업 분야) 소비기반 플랫폼,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에 집중
 - (소비기반 플랫폼) 내수시장이 큰 인도, 중동이 경제적 동맹관계 구축을 위해 다수의 벤처 협약을 체결한 터키, 그 밖에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 (바이오/헬스, 핀테크) 주로 해당 산업분야 기술 선도국인 영미권과 유럽에 집중 투자
- (투자 단계) 중동 국부펀드는 Pre-IPO 단계에서의 투자를 선호

■ 한국은 중동 국부펀드의 관심 투자 분야인 소비기반 플랫폼, 바이오/헬스케어에 강점이 있으며, 이 중 바이오/헬스케어가 높은 투자 적합도를 보유

- 정부가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육성 중인 아기·예비 유니콘기업의 산업 분포는 중동 국부펀드의 관심 분야와 유사
 - 한국도 소비기반 플랫폼, 바이오/헬스케어 등에 다수의 아기·예비 유니콘 기업이 존재
- Pre-IPO 단계에서의 투자를 선호하는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성향을 고려할 때 Series C~E+단계에 있는 예비 유니콘 기업이 투자대상으로 가장 적합
- 바이오/헬스케어의 경우, 아기 유니콘기업과 예비 유니콘기업 모두 투자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
- 소비기반 플랫폼의 경우, 예비 유니콘기업이 내수시장 중심이라는 점과 한국의 작은 내수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중동 국부펀드의 관심도에 한계가 존재

■ 제언 1: 단기 성과를 위해서 K-바이오/헬스케어에 집중

-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중동의 투자 성향과 국내 유망스타트업의 특성과 가장 잘 매칭되는 분야
 - 중동은 바이오/헬스 분야에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투자하는 성향을 보이며, 한국의 병원시스템, 의료기기·바이오 의약품의 중동 진출 확대로 한국 바이오/헬스케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 유치를 집중 공략하고 중동의 투자 성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다른 분야까지 투자유치를 확대

■ 제언 2: 본 글로벌(Born-Global) 소비기반 플랫폼 유니콘 육성

- 중동 국부펀드는 거대 소비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소비기반 플랫폼을 선호하나, 한국 스타트업의 소비기반 플랫폼 대부분은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내수 기반임.
- 따라서 글로벌 소비시장이 큰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을 목표로 한 소비 기반 플랫폼 기업을 창업 초기 단계부터 집중 육성 필요
 -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선정에서 ‘Born-Global’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중동 국부펀드 전용 기업을 별도로 선정하는 방안 등
- 정부가 중동 국부펀드와 조인트 벤처를 조성해 중동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

■ 제언 3: 인적·문화적 네트워킹과 정례적 투자 정보 제공

- 중동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제약 요인은 정보 부족과 문화 및 종교 차이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 의사소통 불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따라서 정부는 민관 협력에 기초해 한국·중동 투자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정례화
- 중동은 펀드별로 투자 업종이나 투자 단계에 대한 선호도가 상이하고 한국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가 부족한바, 중동 국부펀드별 투자 성향을 고려한 매칭 정보 제공이 필요

1. 논의 배경

■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외 벤처투자 규모가 축소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
 - 글로벌 벤처투자는 2021년 4분기 1,78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22년 3분기 벤처투자는 745억 달러로 전 분기 1,126억 달러 대비 34%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1,640억 달러 대비 55% 하락(자료: CB Insights)
-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던 국내 스타트업·벤처 투자 규모 역시 글로벌 벤처투자의 위축과 함께 감소
 - 벤처 투자: (2021년 3분기) 2조 913억 원 → (2022년 3분기) 1조 2,525억 원 (-8,388억 원, -40.1%)(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스타트업 투자: (2021년 하반기) 7조 2,184억 원 → (2022년 하반기) 3조 7,751억 원 (-3조 4,433억 원, -47.7%)(자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중동 국부펀드'를 주목

-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미국, 아시아 중심으로 운영된 해외 벤처 네트워크를 중동,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고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
 - 글로벌 펀드는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해외자본 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23년 말까지 8조원 이상(누적) 조성 예정(2021년 말, 4.9조 원)
- 특히 새로운 벤처투자 유치방안으로 중동을 주목하고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국가와 투자 협력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 중
 - 중동의 국부펀드는 풍부한 자금력과 함께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벤처 투자가 활발하므로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투자 활로가 될 가능성이 큼.

■ 주요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성향과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 적합도를 진단하여 실현 가능한 투자 유치 방향을 마련할 필요

- 중동의 국부펀드가 주목하는 투자대상국·산업·벤처투자 투자 단계를 살펴보고 정부가 육성 중인 아기·예비 유니콘 기업의 특성과 비교·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스타트업에 중동 국부펀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제 제시

2. 국부펀드의 개념과 중동 국부펀드의 주요 동향

가. 국부펀드의 개념과 구분

-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란 국가가 국가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 펀드
 - IMF는 국부펀드를 “정부가 소유한 특수목적 펀드로 거시경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자금 또는 수단”으로 정의
 - 한국의 경우 정부·한국은행의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가 이에 해당
 - 국부펀드와 연기금은 운용 주체가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연기금의 재원은 개인 소득의 일부라는 점에서 차이(한국무역협회, 2021)
- 국부펀드는 자원 조달방식에 따라 ‘상품 펀드’와 ‘비상품 펀드’로 구분
 - (상품 펀드) 석유, 천연가스, 광물 상품 등을 수출해 자본을 마련한 펀드
 - (비상품 펀드) 외환보유액, 무역수지 흑자 등의 일부를 자본으로 마련한 펀드
- 국부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 ①안정화 펀드, ②저축형 펀드, ③개발형 펀드, ④외환 운용수익률 제고 펀드 등으로 구분

〈표 1〉 운용 목적에 따른 국부펀드 유형 구분

유형	운용 목적
① 안정화 펀드	저유가 시기 등 성장이 둔화될 때 경기 순환의 진폭을 줄이기 위함
② 저축형 펀드	자원 고갈에 대비해 자원 개발에서 얻은 수익을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
③ 개발형 펀드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및 전략산업 투자에 주안점을 둠
④ 외환운용수익률 제고 펀드	잉여 외환 보유액의 운용 수익 극대화를 목적

자료: 자본시장연구원(2012), 아랍인 서울(2017) 재구성

-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중동 주요국의 국부펀드는 대부분 자원 조달에서 ‘상품 펀드’, 운용 목적에서 ‘개발형 펀드’를 운영
 - (자원 조달) 중동의 풍부한 석유, 천연가스 등을 활용한 자원 조달
 - (운용 목적) 중동의 석유 고갈에 대비해 단순 수익 추구 중심에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경제 다각화 목적의 투자를 확대(Global SWF, 2023)

나. 중동 국부펀드 자산 규모¹⁾

■ 중동 주요국 국부펀드는 석유 수출을 바탕으로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유가 상승을 바탕으로 가파른 상승세

- 2022년 글로벌 국부펀드 174개의 전체 자산 규모는 11조 3,580억 달러 (Global SWF)²⁾
 - (2020) 10.2조 달러 → (2021) 11.5조 달러 → (2022) 11.4조 달러
- 이 중 중동 지역 27개 국부펀드의 자산 규모는 4조 1,400억 달러로 글로벌 국부펀드 전체 자산의 36.5%를 차지
 - (2021년) 3조 4,550억 달러 → (2022년) 4조 1,400억 달러 (+6,850억 달러, +19.8%)

■ 중동 주요국은 글로벌 국부펀드 상위 10개 중 4개를 보유

- 개별 펀드 기준 국부펀드 자산 규모 순위는 중국 투자청(CIC), 노르웨이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 아부다비투자청(ADIA) 순
- 자산 상위 10개 국부펀드 중 4개*가 중동에 있으며, 4개의 자산 규모는 전체의 24.9%
 - * 아부다비투자청(ADIA), 쿠웨이트투자청(KIA), 사우디공동투자펀드(PIF), 카타르투자청(QIA)

〈표 2〉 자산 규모 상위 10대 국부펀드(2022.12월 기준)

순위	국부펀드	국가	자산 규모		설립 연도
			자산(달러)	비중	
합계	174개		11조 3580억	100%	-
1	중국투자청(CIC)	중국	1조 3510억	11.9%	2007
2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관리청(NBIM)	노르웨이	1조 1450억	10.1%	1997
3	아부다비투자청(ADIA)	UAE	9930억	8.7%	1967
4	중국외환관리국(SAFEIC)	중국	9800억	8.6%	1997
5	쿠웨이트투자청(KIA)	쿠웨이트	7690억	6.8%	1953
6	싱가포르투자청(GIC)	싱가포르	6900억	6.1%	1981
7	사우디공동투자펀드(PIF)	사우디아라비아	6200억	5.5%	1971
8	홍콩통화청(HKMA EF)	홍콩	5000억	4.4%	1993
9	국가사회보장펀드(NSSF)	중국	4740억	4.2%	2000
10	카타르투자청(QIA)	카타르	4500억	4.0%	2005

자료: <https://globalswf.com/rankings/> 재가공 (2023.1월 9일 접속)

- 중동 경제의 호황을 고려할 때 중동 국부펀드의 자산규모는 더욱 커질 것
 - 최근 IMF는 걸프만 6개 회원국*의 2023년 GDP 성장률을 6.5%로, 2022~2026년 경상수지를 1조 달러 흑자로 전망

*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UAE, 카타르, 바레인

1) 이하의 내용은 글로벌 국부펀드 데이터 조사 기관인 Global SWF에서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와 Global SWF의 2023년 연차 보고서(Global SWF, 2023)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2) 2022년 말 기준으로 각 기관에서 보고한 수치를 합한 것이며, 각 기관에서 보고한 수치와는 별도로 Global SWF는 2022년 글로벌 국부펀드 자산 규모를 10.6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음.

다.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동향

■ 중동 국부펀드가 글로벌 국부펀드 투자 시장을 주도

- 2022년 글로벌 국부펀드의 투자액은 1,525억 달러(427건)로 전년 대비 38% 증가
 - 투자 금액: (2021) 1,106억 달러 → (2022) 1,525억 달러 (+419억 달러, +38%)
 - 투자 건수: (2021) 511건 → (2022) 427건 (-84건, -16%)
-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중동 국부펀드 특히 5개 펀드*가 활발하게 투자 했는데 이들의 투자 비중은 전체 글로벌 국부펀드 투자의 48.4%에 달함.
 - * (아부다비투자청) 259억 달러, 17.0%, (사우디공동투자펀드) 207억 달러, 13.6%, (무바달라투자회사) 113억 달러, 7.4%, (ADQ) 87억 달러, 5.7%, (카타르투자청) 71억 달러, 4.7%

■ 특히 신 성장 동력인 벤처캐피탈(VC) 투자 역시 중동 국부펀드가 압도적

- 2022년 중동은 벤처 투자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국부펀드 중 4개*를 운영
 - * 사우디공동투자펀드, 무바달라 투자회사, 카타르투자청, 아부다비국영지주회사

〈표 3〉 2022년 벤처캐피탈 투자 상위 10개 국부펀드

순위	국부펀드	국가	자산 규모	VC 투자 규모(달러)	VC 투자 비중	자국 투자 비중
1	사우디공동투자펀드 (PIF)	사우디 아라비아	6200억 달러	514억 ³⁾	8%	0%
2	무바달라투자회사	UAE	284억 달러	206억 ⁴⁾	7%	1%
3	테마섹	싱가포르	283억 달러	172억	6%	15%
4	싱가포르투자청(GIC)	싱가포르	799억 달러	73억	1%	0%
5	BPI프랑스	프랑스	510억 달러	51억	10%	100%
6	알래스카영구기금	미국	810억 달러	47억	6%	78%
7	퓨처펀드	호주	1870억 달러	38억	2%	3%
8	카타르투자청(QIA)	카타르	4450억 달러	35억	1%	0%
9	아부다비국영 지주회사(ADQ)	UAE	1080억 달러	30억	3%	66%
10	중국투자청(CIC)	중국	1조 2220억 달러	30억	0%	90%

자료: Global SWF(2023) 보고서 내용을 재구성

주1: 자산 및 투자규모는 2022년 8월 기준이며 VC 투자실적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비전펀드 등 펀드사에 대한 투자 실적을 포함한 수치

3) 소프트뱅크비전펀드에 대한 450억 달러 투자를 포함

4) 소프트뱅크비전펀드와 무바달라 벤처에 대한 150억 달러 투자를 포함

3. 중동 국부펀드의 벤처투자 성향과 국내 환경 분석

가. 분석개요

■ 중동 국부펀드의 국내 벤처투자 유치를 위해서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투자 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집중 공략할 필요

- 이를 위해 중동 국부펀드 중 글로벌 벤처투자를 주도하는 3개 펀드*를 중심으로 산업 분야, 투자유치 단계별 벤처투자 경향을 살펴봄.

* 카타르 투자청(QIA), 무바달라투자회사(Mubadala), 아부다비국영지주회사(ADQ) 등 3개 펀드

* 사우디공동투자펀드(PIF)는 소프트뱅크와 공동 조성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통한 투자가 대부분으로 투자기업 확인에 제약이 있어 본 분석에서 제외

- 이와 함께 정부가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육성 중인 국내 아기·예비 유니콘 기업의 산업 분야와 투자유치 단계별 특성을 파악하여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성향과 비교·분석함.

* K-유니콘 프로젝트: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해외 자본 유치 등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정책

〈표 4〉 중동 국부펀드 벤처투자 성향과 국내 벤처환경 분석 내용

구 분	중동 국부펀드 벤처투자 성향	국내 벤처 환경
분석 대상	카타르투자청(QIA), 무바달라투자회사, 아부다비국영지주회사(ADQ)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분석 자료	Seed ~ Series K까지 투자기업 정보 (CB Insights data)	중기부 K-유니콘, The VC
분석 범위	2018년 ~ 2022년 10월(최근 5년)	
분석 항목	투자국가, 투자분야(산업), 투자규모 및 건수, 투자 라운드 등 ⁵⁾	

나. 카타르 투자청(QIA)의 벤처투자 성향

■ 최근 5년 QIA는 138억 달러, 44건의 투자를 진행

- 주요 투자 분야는 소비기반 플랫폼, 핀테크, 바이오/헬스케어

5) 투자기업의 정보 및 투자 규모 등이 비공개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 소비기반 플랫폼은 주로 인도에 투자했으며, 핀테크 및 바이오/헬스케어는 영미권과 유럽에 집중적으로 투자

- ① 소비기반 플랫폼: (인도) 22.8억 달러, (터키) 15.0억 달러, (미국) 8.8억 달러
- ② 핀테크: (영국) 13.8억 달러, (중국) 13.3억 달러, (미국) 5.0억 달러
- ③ 바이오/헬스케어: (미국) 11.4억 달러, (독일) 4.1억 달러, (프랑스) 2.5억 달러

[그림 1] 최근 5년 카타르 투자청의 투자 분야 및 주요 투자 국가



자료: CB Insight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주: 투자 상위 3개국은 투자규모 기준 (이하 동일)

- 주로 Series C, D단계 이후에 투자하며, 특히 소비 기반 플랫폼, 핀테크 분야는 Series D, E단계 등 후기 단계의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

- ① 소비기반 플랫폼: Series E 이후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음.
- ② 핀테크 분야: Series D 이후에 집중
- ③ 바이오/헬스케어: Series B, Series C에 주로 분포

[그림 2] 최근 5년 카타르 투자청의 투자 분야 및 단계별 투자비중

	Seed	Series A	Series B	Series C	Series D	Series E+
바이오/헬스케어			37.5%	37.5%	6.3%	18.8%
소매업		100.0%				
소비기반 플랫폼			5.9%	11.8%	17.6%	64.7%
소프트웨어/서비스					50.0%	50.0%
스마트팜					100.0%	
제조업					100.0%	
친환경자동차				100.0%		
핀테크				20.0%	4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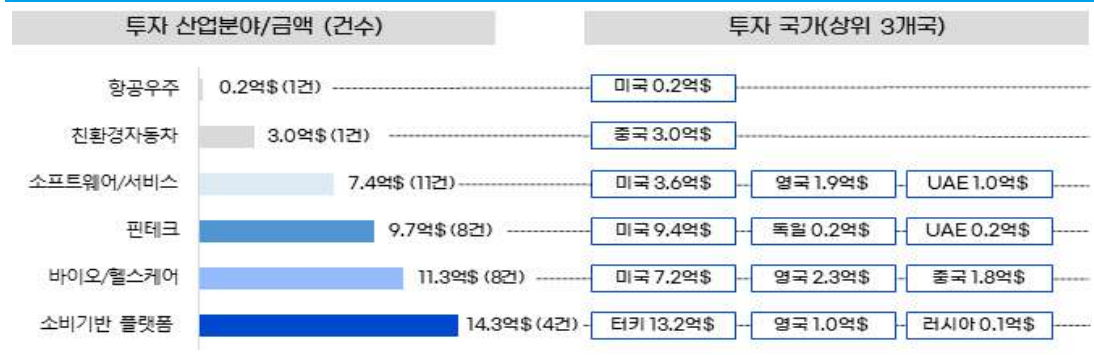
자료: CB Insight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다. 무바달라투자회사(Mubadala)의 벤처투자 성향

■ 최근 5년 무바달라는 46억 달러, 33건의 투자를 성사

- 주요 투자 분야는 소비기반 플랫폼,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 소비기반 플랫폼은 유럽권, 핀테크는 미국, 바이오/헬스케어는 영미권에 집중
 - ① 소비기반 플랫폼 : (터키) 13.2억 달러, (영국) 1억 달러, (러시아) 0.1억 달러
 - ② 바이오/헬스케어 : (미국) 7.2억 달러, (영국) 2.3억 달러, (중국) 1.8억 달러
 - ③ 핀테크 : (미국) 9.4억 달러, (독일) 0.2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0.2억 달러

[그림 3] 최근 5년 무바달라 투자회사의 투자 분야 및 주요 투자 국가



자료: CB Insight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바이오/헬스케어 및 핀테크 분야는 대체로 Series C~E(후기 단계) 투자를 선호)
 - ① 소비기반 플랫폼: Series B~E까지 투자 비중이 고르게 분포
 - ② 바이오/헬스케어: Series A와 Series D의 투자 비중이 높음
 - ③ 핀테크 분야: Series D, E의 비중이 높으나, Seed 단계에도 투자가 이루어짐.

[그림 4] 최근 5년 무바달라투자회사의 투자 분야 및 단계별 투자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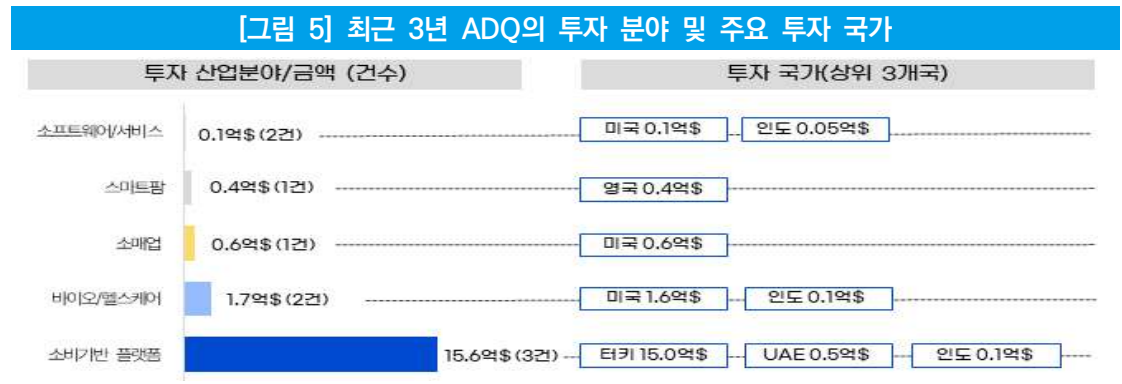
	Seed	Series A	Series B	Series C	Series D	Series E+
바이오/헬스케어		37.5%	12.5%		50.0%	
소비기반 플랫폼			25.0%	25.0%	25.0%	25.0%
소프트웨어/서비스		9.1%	27.3%	45.5%	9.1%	9.1%
친환경자동차				100%		
핀테크	12.5%		12.5%	12.5%	25.0%	37.5%
항공우주		100%				

자료: CB Insight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6) Cardullo(1999)는 Series A~B는 투자유치 초기 단계, Series C~E는 후기 단계로 구분

라. 아부다비국영지주회사(ADQ)의 벤처투자 성향

- 최근 3년 ADQ^{2020년} 재출범은 18.3억 달러, 9건의 투자를 진행
 - 주요 투자 분야는 소비기반 플랫폼, 바이오/헬스케어, 소매업 순
 - ADQ는 2020년부터 투자를 시작해 현재까지는 터키를 중심으로 소비기반 플랫폼에 대한 투자 집중
 - ① 소비기반 플랫폼: (터키) 15.0억 달러, (UAE) 0.5억 달러, (인도) 0.1억 달러
 - ② 바이오/헬스케어: (미국) 1.6억 달러, (인도) 0.1억 달러
 - ③ 소매업: (미국) 0.6억 달러



자료: CB Insight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주로 초기 단계의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나, 투자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① 소비기반 플랫폼: Series B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음.
 - ② 바이오/헬스케어: Series A와 Series D에 투자
 - ③ 소매업: Series B에 투자가 이루어짐.



자료: CB Insight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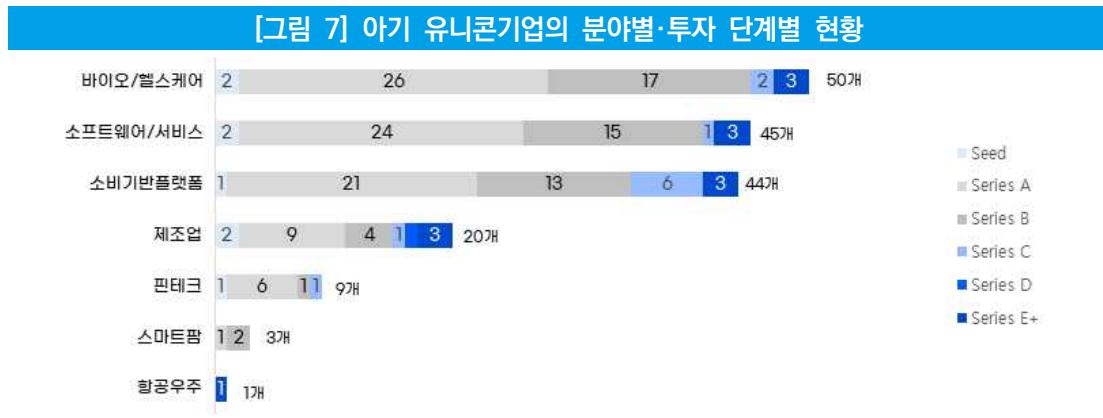
마. 국내 아기·예비 유니콘 기업의 투자유치 현황

■ 중기부가 선정한 아기·예비유니콘 기업의 산업분야, 투자단계별 현황을 살펴봄.

- The VC에 공개된 데이터를 참고하여 아기 유니콘 기업 200개, 예비 유니콘 기업 96개의 투자유치 현황을 분석⁷⁾

■ 아기 유니콘 기업은 Series A·B의 바이오/헬스케어, 소프트웨어/서비스에 주로 분포

- (분야) 투자유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는 바이오/헬스케어(50개), 소프트웨어/서비스(45개), 소비기반 플랫폼(44개) 순



자료: The VC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투자 단계) 주로 Series A, B의 초기 투자유치 단계에 분포
 - 특히,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소프트웨어/서비스 분야는 Series A 단계의 투자유치 비중이 50% 이상

[그림 8] 아기 유니콘 기업의 투자유치 산업 및 단계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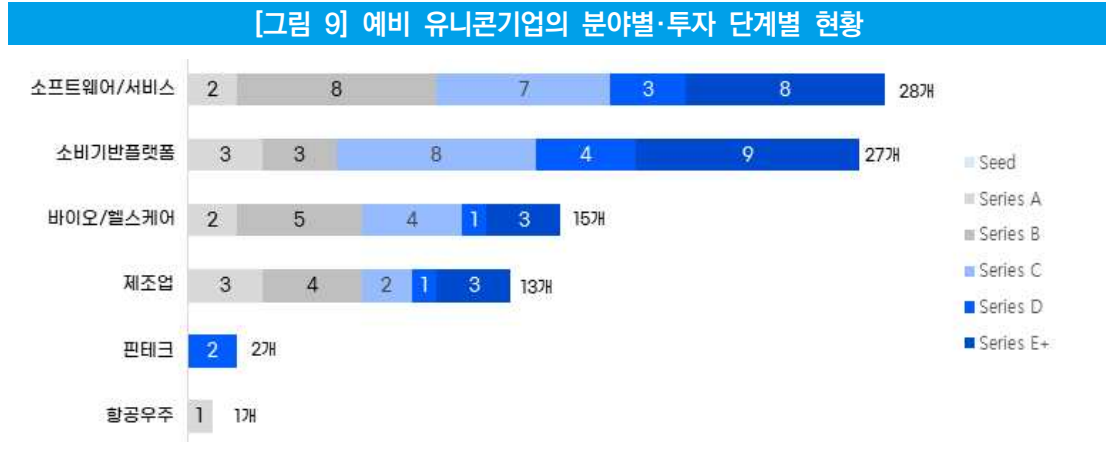
산업분야	Seed	Series A	Series B	Series C	Series D	Series E+
바이오/헬스케어	4%	52%	34%	4%		6%
소프트웨어/서비스	4.4%	53.3%	33.3%	2.2%		6.6%
소비기반플랫폼	2.3%	47.7%	29.5%	33.3%		6.8%
제조업	10.0%	45.0%	20.0%	5.0%	5.0%	15.0%
핀테크	11.1%	66.7%	11.1%	11.1%		
스마트팜		33.3%	66.7%			
항공우주						100%

자료: The VC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7) 유니콘 기업의 산업 분류는 해당 기업의 주요 사업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분류하였으며, 투자 유치 정보가 없는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

■ 예비 유니콘기업은 Series B·C의 소프트웨어/서비스, Series C 이상의 소비기반 플랫폼에 주로 분포

- (분야) 투자가 주로 이루어진 분야는 소프트웨어/서비스(28개), 소비기반 플랫폼 (27개), 바이오/헬스케어(15개) 순



자료: The VC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투자 단계) Series C~E+의 후기 투자유치 단계 비중이 높음
 - 예비 유니콘기업은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만큼 Series C~E+ 등 후기 투자 유치단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후기 단계로 진입하려는 Series B 단계에도 다수 포진

[그림 10] 예비 유니콘기업의 투자유치 산업 및 단계별 비중

	Seed	Series A	Series B	Series C	Series D	Series E+
소프트웨어/서비스		7.1%	28.6%	25.0%	10.7%	28.6%
소비기반 플랫폼		11.1%	11.1%	29.6%	14.8%	33.3%
바이오/헬스케어		13.3%	33.3%	26.7%	6.7%	20.0%
제조업		23.1%	30.8%	15.4%	7.7%	23.1%
핀테크					100%	
항공우주		100%				

자료: The VC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바. 분석결과 종합

■ (투자 분야) 중동은 소비기반 플랫폼과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산업에 집중

- (소비기반 플랫폼) 내수시장이 큰 인도, 경제적 동맹을 위해 다수의 벤처 협약을 체결한 터키, 이외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짐.
-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주로 영미권과 유럽에 집중 투자

- 국내 아기·예비 유니콘기업의 분포가 주로 바이오/헬스케어, 소비기반 플랫폼 등이라는 점에서 중동 국부펀드의 관심 분야와 적합도가 높음.
- 바이오/헬스케어는 중동의 관심도도 높고 국내 아기·예비 유니콘기업이 다수 존재하여 중동과 투자 적합도가 높음.
- 소비기반 플랫폼은 중동의 산업 관심도와 국내 기업의 분포 측면에서는 적합도가 높으나 중동의 관심 국가가 내수시장이 큰 국가 또는 지정학적 외교 수단으로서 중동 지역 국가이므로 국내 아기·예비 유니콘기업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
- 핀테크는 중동의 관심 분야이지만 국내 아기·예비 유니콘기업이 부족

■ (투자 단계) 중동 국부펀드는 Pre-IPO 단계에서의 투자를 선호

- (소비기반 플랫폼) 소비기반 플랫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카타르 투자청은 Series E 이상에 대한 투자가 65%에 달함.
 - 무바달라는 Series C 단계의 투자를 선호하며 투자건수는 많지 않지만 ADQ는 초기 단계인 Series B 단계에 주로 투자
- (바이오/헬스케어) 비교적 초기 단계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카타르 투자청은 Series B, C, 무바달라는 Series A와 D에 주로 투자
- (핀테크) 주로 Series D, E 단계의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

- 국내 예비 유니콘기업 중 상당수가 Series C 단계 이상으로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선호도에 부합
- 아기 유니콘기업이 다수 분포하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중동 국부펀드가 비교적 초기 단계(Series A, B)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이라는 점이 고무적

4. 시사점과 정책 제언

가. 시사점

- 중동의 국부펀드는 글로벌 경기 악화에도 투자를 확대
 - 중동의 국부펀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고유가로 자산을 축적하면서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Global SWF, 2023)
 - 중동 경제의 호황 전망을 고려할 때 향후 중동 국부펀드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
- 중동은 국부펀드를 산업구조 다각화와 외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므로 중동 산업 다변화에 대한 한국 벤처기업의 역할과 파트너십을 강조할 필요
 - 중동은 동맹국과 경제 협력* 추진과정에서 대규모 벤처투자를 실시하는데 벤처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의 경제외교 역할이 중요
 - * 대표적으로 사우디, UAE는 과거 터키와 적대적 관계였으나 최근 국부펀드에 기반해 다수의 벤처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동맹 관계를 구축
- 한국은 중동 국부펀드의 관심 투자 분야인 소비기반 플랫폼, 바이오/헬스케어에 강점이 있으며, 이 중 바이오/헬스케어가 높은 투자 적합도를 보유
 - 정부가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육성 중인 아기·예비 유니콘기업의 산업 분포는 중동 국부펀드의 관심 분야와 유사
 - 중동 국부펀드는 바이오/헬스케어, 소비기반 플랫폼*, 핀테크에 막대한 투자
 - * 다만 소비기반 플랫폼은 인도 등 내수시장이 큰 국가를 선호
 - 한국도 소비기반 플랫폼, 바이오/헬스케어 등에 다수의 아기·예비 유니콘 기업이 존재
 - Pre-IPO 단계에서의 투자를 선호하는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성향을 고려할 때 Series C~E+단계에 있는 예비 유니콘 기업이 투자대상으로 가장 적합
 - 중동 국부펀드는 상대적으로 Series C 단계 이후의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
 - 바이오/헬스케어의 경우, 아기 유니콘기업과 예비 유니콘기업 모두 투자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
 - 소비기반 플랫폼의 경우, 예비 유니콘기업이 내수시장 중심이라는 점과 한국의 작은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중동 국부펀드의 관심도에 한계 존재

나. 정책 제언

■ 제언 1: 단기 성과를 위해서 K-바이오/헬스케어에 집중

- 바이오/헬스케어는 중동의 투자 성향과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특성이 가장 잘 매칭 되는 분야
 - 중동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의 투자도 선호하며 해당 산업에는 국내 아기·에비유니콘 기업이 다수 포진
- 또한 한국의 병원 시스템,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의 중동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바이오·헬스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분야임.
 - 한국의 UAE·사우디·쿠웨이트·카타르 의료용품 수출액(자료: 관세청)⁸⁾:
(2016년) 1,598만 달러 → (2021년) 4,226만 2,000 달러 (+2,628만 달러, +164.5%)
- 따라서 단기적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투자 유치를 집중 공략하고 중동의 투자 성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다른 분야까지 투자유치를 확대

■ 제언 2: 본 글로벌(Born-Global) 소비기반 플랫폼 유니콘 육성

- 중동의 국부펀드는 거대 소비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소비기반 플랫폼을 선호하나 한국 스타트업의 소비기반 플랫폼 대부분은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내수 기반임.
- 따라서 글로벌 소비시장이 큰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을 목표로 한 소비 기반 플랫폼 기업을 창업 초기 단계부터 집중 육성 필요
 -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선정에서 ‘Born-Global’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중동 국부펀드 전용 기업을 별도로 선정하는 방안 등
- 정부가 중동 국부펀드와 조인트 벤처를 조성해 중동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

■ 제언 3: 인적·문화적 네트워크와 정례적 투자 정보 제공

- 중동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제약 요인은 정보 부족과 문화 및 종교 차이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 의사소통 불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따라서 정부는 민관 협력에 기초해 한국·중동 투자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정례화
- 중동은 펀드별로 투자 업종이나 투자 단계에 대한 선호도가 상이하고 한국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가 부족한바, 중동 국부펀드별 투자 성향을 고려한 매칭 정보 제공이 필요

8) “수출 165% 증가…K바이오, 중동서 통했다, 『서울경제』, (2022.11.14일자).

참고자료

[국내 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중동 국부펀드 현황과 활용 방안」, 지역경제포커스, Vol 5., No. 41.
자본시장연구원(2012), 「글로벌 국부펀드 현황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2021), 「중동 지역 주요 국부펀드 현황」.

[외국 문헌]

Cardullo, M. W.(1999). Technological Entrepreneurism: Enterprise Formation, Financing and Growth, Research Studies Press Ltd., Baldock, England
Global SWF(2023). 2023 Annual Report. "State-Owned Investors in a Multipolar World".

[기사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올 1~3분기 벤처투자 5.4조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 보도자료(2022.10.27.).
중소벤처기업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보도자료 (2022.11.4).
임지훈·김병준 「“수출 165% 증가…K바이오, 중동서 통했다.」, 『서울경제』, (2022. 11. 14).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MHOJQ16>
염현아 「쫄그라든 글로벌 벤처 자금…"올해는 대조정시기, 내년부터 투자 재개 기대」, 『시사저널 e』, (2022. 11. 10). 출처 :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121>
최동현 「스타트업 투자, 흑한기에서 빙하기로」, 『아시아 경제』, (2023. 1. 13).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11216255025459>

[인터넷 자료]

CB Insights Data. <https://www.cbinsights.com/>
The VC. <https://thevc.kr/>
Global SWF, Rankings, <https://globalswf.com/ranking>(검색일: 2023. 1. 9).
아랍인서울(2017), “중동의 국부펀드의 특성과 투자 동향”,
<http://arabinseoul.com/archives/5118> (검색일: 2023. 1. 12).

KOS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오동윤

편집인 : 최세경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i.re.kr>

인쇄처 : 주식회사 위드원커뮤니케이션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